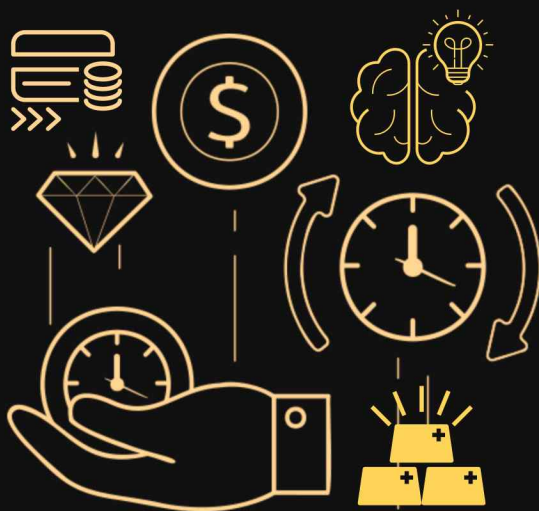


트레이딩 브레인

흔들리는 뇌에서 부자의 뇌로



김강희 지음

글빛브레인

작가소개

김강희 | 글빛브레인(GiBitBrain)대표

20년간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쳐온 뇌교육 전문가. 글빛브레인 출판사 대표로서 "읽고 쓰는 뇌가 성장한다"는 믿음을 책으로 만들어왔다. 『내 맘대로 나를 바꾸는 뇌신경망 고속도로』, 『쓰는 뇌는 늙지 않는다』 등을 통해 뇌의 변화 가능성과 글쓰기의 힘을 이야기해 왔다.

2024년 7월, 금선물 트레이딩을 시작했다. 완전한 주식문맹이었다. 차트가 뭔지, 캔들이 뭔지, 롱과 숏이 뭔지도 몰랐다. 그래서 공부했다. 이해가 안 되면 더 쉬운 말로 바꿔가며 정리했다. 이 책은 그렇게 태어났다.

20년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해온 교육자의 눈으로 썼다. 어려운 용어는 일상의 언어로 풀었고, 복잡한 개념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이 책은 전문가의 고급 전략서가 아니다.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실전 투자 설명서다.

GiBitBrain(글빛브레인)은 글(Gl)과 비트(Bit), 그리고 뇌(Brain)가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브랜드다. 오래된 언어의 깊이와 데이터의 정밀함을 한 사람의 뇌 안에서 통합하는 것. 이것이 글빛브레인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작가와의 소통

이 책을 읽으며 궁금한 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여정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메일 hopekang99@naver.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ppybrain79>

유튜브 <https://youtube.com/@꿈키강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gumkeykang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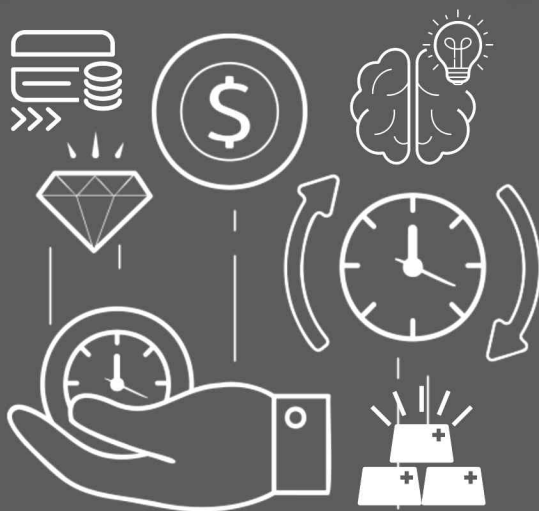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appybrain79>

행복두뇌친구들 카페



트레이딩 브레인

흔들리는 뇌에서 부자의 뇌로



GLBitBrain

프롤로그

시장은 감정의 전쟁터,
승리는 평정한 뇌에서 시작된다.

나는 왜 '주식 문맹'이었을까

나는 오랫동안 '주식 문맹'이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도 몰랐고, 나스닥과 S&P500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주식을 사고 팔아본 적 없었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몰라. 그쪽은 한 번도 공부해본 적이 없어.'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자량이 아니라 무식한 거였다는 것ですよ.

어릴 적 환경이 그랬습니다. 포항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현금으로만 살아온 부모님, 주변에서 들리던 "주식으로 망했다"는 이야기들. 나는 자연스럽게 "투자는 위험한 것, 손대면 안 되는 것"으로 각인 되었죠. 그렇게 주식은 '우리과 상관없는 세계'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분들을 살펴보니 다들 주식은 웬만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만 안 하고 있네?'

큰아이가 내년 대학을 가고, 둘째도 이제 중3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현실적으로 나의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른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듣는 귀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절대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먹었습니다. 공부를 해보자.

선택과 용기의 연습

사실 저는 그 전에도 여러 선택을 해왔습니다.

서울 근교 의왕시에서 작은 빌라를 직접 꾸미며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페인트도, 천정도, 문짝도 제 손으로 칠했죠. 첫 집이라 애착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기엔 너무 좁았어요. 서울 생활은 답답했고, 캠핑을 좋아하는 저희 부부에게 주말마다 막히는 차는 고역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목포에 살면 제주도로 캠핑 갈 수 있어."

웃기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목포로 내려왔고, 37살 즈음, 결국 땅을 사서 4층 건물을 직접 지었습니다. 1층 101호는 글빛브레인 출판사 겸 평생교육원, 나머지 1층 한켠은 상가 월세. 2층과 3층은 각각 2가구씩 임대. 그리고 4층 복층은 테라스와 마당이 있는 우리 집.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 집이었던 의왕시 집을 팔아야 했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선택과 용기, 그리고 실행의 힘을요.

원래 계획은 3년만 살려던 목포에서 지금 거의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하지만 돌아해보면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금선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게 필요한 건 부동산만이 아니라, 좀 더 유동적이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금선물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금선물?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 수많은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 단 하나의 자산 흐름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금은 어릴 적부터 익숙한 자산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금반지, 어머니가 아껴두신 금목걸이. 그것들을 볼 때면 왠지 모를 든든함이 있었거든요.

금은 6,000년 넘게 인간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선호해 온 안전자산입니다. 달러가 흔들려도, 주식이 폭락해도, 금은 그 가치를 지켜왔죠.

2024년 7월, 저는 금 선물 스터디에 합류했습니다.

1년 반의 여정: 돈이 아닌 나를 보게 된 시간

처음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켜고, 캔들을 보고, 이동평균선을 배웠죠. MACD, RSI, 볼린저밴드... 생소한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 가격을 보는 것이 곧 제 감정을 보는 일이 되었습니다. 차트가 떨어지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오르면 조금해졌습니다. 손실이 나면 화가 났고, 수익이 나면 욕심이 생겼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돈의 게임이 아니라 감정의 게임이다.

그리고 제가 20년간 해온 교육과 뇌과학 연구가 바로 여기에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을 키우고 감정을 조절하도록 돕던 그 원리가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거든요. 편도체와 전전두엽, 도파민과 코르티솔, 알파파 상태. 이 모든 뇌과학 지식이 트레이딩과 연결되었습니다. 결국 트레이딩은 뇌를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금값은 2,300달러에서 4,4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그 과정에서 저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얼마를 벌었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통제했는가'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대입 끝나고 나면 내가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쉽게 책 써주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거다. 내 아들, 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게 이 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저는 왕초보입니다. 고작 1년 반 정도 공부한 초보 중의 초보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강점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전문가들은 어려운 용어로 설명합니다. 당연하죠. 그들에게겐 쉬우니까. 하지만 저는 왕초보니까 압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독서교육 전문가가 쓴 금선물 책. 어쩌면 그게 이 책의 가장 큰 차별점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 가르치듯, 쉽고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게. 그렇게 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본 큰아들에게 여기저기서 축하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이 돈으로 주식을 살 거예요. 엔비디아 살게요, 아빠."

둘째 딸도 용돈이 생기면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고, 일부는 자기가 쓰고, 일부는 예금도 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투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늘 금값이 어땠어?', '엔비디아가 올랐대' 같은 대화가 오갑니다.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주식을 가르친다고 하죠. 투자에 대한 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위한 두 번째 사업계획서

우리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죠.

남편은 주식 장기투자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선물, 그것도 1분 봉을 보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1달러 오르내릴 때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스캘핑위주(초단타매매방식)로 1시간봉 4시간 봉을 보면서 스윙(단타보다 길고, 중장기 거래보다 짧은 거래)을 함께하는 거래지요.

아직도 남편은 제가 하는 금선물 거래를 조심스러워하니

다. '선물은 위험하지 않아? 레버리지 쓰면 빚질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저는 압니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규칙적인 금선물 트레이딩이 더 잘 맞는다는 것ですよ.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토스, 미니모 같은 앱으로 매일 만보를 걷고, 포인트를 모아서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 성실함이면, 금선물이 완벽하게 맞을 텐데.'

금선물은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감정 없이, 원칙대로 거래하는 겁니다. 진입 조건 5가지 충족, 들어간다. 손절 지점 도달, 나온다. 목표 수익 달성, 욕심 안 낸다. 이게 전부예요.

만보 걷기만큼이나 규칙적이고, 만보 걷기만큼이나 단순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책을 쓴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두 번째 사업계획서.

웃기죠? 하지만 진심입니다.

목포에 건물을 지을 때도 사업계획서를 써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 한 권이 남편을 설득하는 두 번째 사업계획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혹시 주변에 설득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이 책이 당신의 사업계획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쓰는 이유

이 책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저처럼 '주식 문맹'이었던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금선물이 뭔지, 차트는 어떻게 보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제가 초보자였기에, 초보자의 눈높이를 압니다. 선물 차트를 보는 눈은 주식 차트든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차트든 모든 차트를 보는 기본은 같습니다.

둘째, 제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정적인 장기 투자만 선호하는 남편에게, 금선물 트레이딩이 어떻게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

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셋째, 제 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쓰고 싶었습니다.

대학생 올라가는 큰아들이 "엄마, 이거 쉽게 설명 해줄 수 있어?"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 책을 건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최대한 쉽게, 하지만 본질은 놓치지 않게 썼습니다.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책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도 아니죠.

대신 이 책은 왕초보도 이해할 수 있는 금선물의 기초, 감정을 다스리는 뇌과학적 접근, 실전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가짐,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훈련법을 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뇌에서 부자의 뇌로

시장은 감정의 전쟁터입니다.

공포와 탐욕, 조급함과 후회, 흥분과 절망. 이 모든 감정이 차트 위에서 춤을 춥니다.

그 춤에 휘둘리면, 돈을 잃습니다.

그 춤을 관찰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의 뇌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책은 바로 그 훈련 가이드입니다.

1부에서는 뇌과학을 배웁니다. 투자할 때 당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 감정을 훈련하는 법, 알파파 상태 만들기.

2부에서는 금선물의 기초와 기술적 분석을 배웁니다. 완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3부에서는 나만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듭니다. \$1 전략, 진입과 청산 규칙, 감정 일지, 평생 쓸 수 있는 시스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당신의 뇌는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뇌에서, 부자의 뇌로.

그 첫걸음을 지금 시작합니다.

차트를 켜는 순간부터, 당신은 돈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결국 부를 만듭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김강희

글빛브레인 [GiBitBrain]

2025년 12월, 목포에서

트레이딩 브레인



목차

프롤로그

시장은 감정의 전쟁터,
승리는 평정한 뇌에서 시작된다

1부.

흔들리는 뇌에서 부자의 뇌로

1장. 투자할 때 당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	23
2장. 감정은 훈련할 수 있다 -과학적 증거	30
3장. 알파파 상태 만들기 - 평정심의 기술	39
4장. 실수를 학습으로 바꾸는 뇌	52
5장. 부자의 뇌가 가진 3가지 습관	63

2부.

금선물 실전 가이드

6장. 금선물이란 무엇인가	77
7장. 캔들차트 완전 정복	88
8장. LOT, 레버리지, 마진의 개념	105
9장. 지지선과 저항선: 시장 심리의 벽	125
10장. 핵심 지표 5종	
• 이동평균선	143
• 볼린저 밴드	158
• MACD	170
• 슈퍼트렌드	184
• RSI	196
11장. 심화 지표 5종	
• 스토캐스틱	209
• 거래량	222
• 파라볼릭 SAR	227
• 피보나치 되돌림	231
• 피벗 포인트	237
12장. 5개 신호등 체크리스트	246

3부.

나만의 트레이딩 시스템

에필로그

부록

13장. 1달러 전략: 수익보다 평정심	263
14장. 진입과 청산: 흔들리지 않는 기준	281
15장. 감정 일지와 복기의 기술	297
16장. 시스템 트레이딩과 AI활용	314

차트를 읽는 눈이 곧 나를 읽는 눈이다.	332
---------------------------	-----

1. 거래소 비교 및 선택 가이드	339
2. XM 거래소 가입 안내	339
3. Vantage 거래소 가입 안내	341
4. MT5 설치 및 설정 가이드	343
5. MT5 실전 거래 팁	344
6. 투자 용어 사전	346
7. 매매 일지 템플릿	349
8. 행복두뇌친구들 카페 안내	350

참고문헌	352
------	-----